

미술치료사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슈퍼비전 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¹⁾

강 지 선²⁾ 박 성 혜³⁾
숙명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미술치료사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슈퍼비전 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상담기관에서 근무하는 미술치료사 184명을 대상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 수행불안 척도, 슈퍼비전 관계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와 PROCESS Macro 3.3.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치료사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수행불안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기효능감 및 슈퍼비전 관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수행불안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슈퍼비전 관계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수행불안과의 관계에서 슈퍼비전 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미술치료사,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수행불안, 슈퍼비전 관계

-
- 1) 본 연구는 강지선(2023년)의 숙명여자대학교 심리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2) 강지선 / 숙명여자대학교 심리치료대학원 미술치료학과 석사.
 - 3)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성혜 / 숙명여자대학교 심리치료대학원 미술치료학과 교수 / 서울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 E-mail : elly9691@sookmyung.ac.kr

I. 서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사람들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불안과 우울 등 개인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양산했다(이동훈, 김예진, 이덕희, 황희훈, 남슬기, 김지윤, 2020; 전진아, 이지혜, 2020; 최지욱, 2021). 실제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코로나 이전에 비해 우울위험군은 5배, 자살생각률은 3배 늘어 심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기정훈, 2022). 또한, 국회에서도 심리상담 관련법이 2022년에만 ‘상담사법’안, ‘심리상담사법’안,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리사법’안 등 4건이 위원회에 회부되어(국민참여입법센터, 2022)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서비스가 지원되도록 그 자격이 강화되는 실정이다. 이렇게 심리상담 관련 서비스의 중요성과 그것을 제공하는 심리치료사의 전문성이 높게 요구되고 있는 지금, 이에 종사하는 심리치료사들이 느끼는 어려움도 다양하다.

특히, 미술치료는 일반적인 심리치료의 요소인 내담자, 치료사, 내담자와 치료사의 상호작용 이외에 ‘미술’이라는 요소가 추가되어 내담자와 치료사, 미술이라는 삼각 구도를 형성하기에(Schaverien, 2000), 미술치료사는 미술치료과정에서 내담자뿐만 아니라 작품에 대한 해석, 작품에 대한 역전이, 윤리적 문제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더 많아진다(이혜선, 최선남, 2010). 즉, 미술치료는 심리적 문제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를 미술 작업을 매개로 하여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는 심리치료이기에(조소영, 2020), 미술치료사의 어려움을 살펴볼 때 일반적인 심리치료사가 겪는 어려움과 더불어 미술치료 장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도 살펴보아야 한다.

미술치료사는 언어 이외에 미술 매체 표현으로 의사소통하고, 내담자가 자신의 작품을 바탕

으로 스스로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적 특성으로 인해 작업에 대한 부담감, 내담자의 작품 해석과 이해 과정에서 오는 모호함과 오류에 대한 염려로 인해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한다(채양희, 2020). 또한, 치료과정에서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에서 오는 역할로 인해 전문가, 상담가, 미술치료사 등의 정체성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최명선, 김봉환, 2014). 내담자의 범위도 언어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아동부터 노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다양하여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스트레스 상황에 쉽게 노출(김예은, 김갑숙, 2020)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또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등장한 비대면 치료에서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 한계설정이라는 윤리적인 문제(MacMullin et al., 2020)뿐만 아니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미술치료사들이 내담자들과 소통의 어려움을 겪어 내담자와의 치료관계에서 불안과 두려움, 우울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김지은, 곽민정, 2021).

심리치료장면에서 치료사가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 중 불안에 대해 Bandura(1956)는 치료사의 불안이 높을수록 치료사가 방어적이며 반응이 경직되는 경향이 있고, Skovholt와 Rønnestad(2003)의 연구에서는 초보 치료사의 심한 수행불안은 스트레스 유발요인이며, 이런 치료사의 불안은 치료장면에서 치료의 집중을 어렵게 하고, 내담자의 작업을 방해하여 치료 관계를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일반적인 심리치료사의 불안을 다룬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치료사는 이타적 직업 특성상 내담자들에게 치료장면 내내 민감해야 하고 보살핌과 배려를 주어야 하기에 정서적 부담이 크고(최윤미, 양난미, 2002), 그 가운데 느끼는 심리적 긴장 중 하나가 불안이며(이형주, 최해림, 2010), 불안은 치료사의 인지 과정에 영

향을 미쳐서 치료과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홍수현, 최해림, 2001).

김은지와 박보람(2019)의 연구에서는 미술치료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미술치료사의 불안을 다루며 임상을 수행하는 동안 또는 임상 수행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을 ‘수행불안’이라고 하고, 치료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심리치료사들의 불안에 관한 연구를 미루어 볼 때 미술치료사의 수행불안 역시 치료장면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불안을 일으키는 중요한 변인으로 선행 연구들은 완벽주의를 언급하고 있다(박현영, 홍혜영, 2019; 이성령, 홍혜영, 2016; 이성원, 양난미, 2015). 완벽주의는 경쟁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하는데 긍정적인 면을 보이기도 하지만,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을 성취와 생산성 기준으로 평가하기에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Dunkley & Blankstein, 2000; Flett & Hewitt, 2002). Corey(2017)는 상담자의 에너지가 치료장면에서 자신이 완벽하게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담자에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리고 상담자가 심리적으로 소진된다고 하였다. 더구나 상담이나 심리치료의 경우 성공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고, 내담자들의 치료 효과나 변화가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에 성취 여부를 관찰하기가 어려워(최혜운, 정남운, 2003) 상담자나 심리치료사의 완벽주의가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완벽주의에 관한 초기연구는 역기능적인 신념과 태도 등 부적응적 요소인 단일 차원 개념으로 이해하였으나, 1990년 이후 완벽주의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면서 부적응적 요소와 적응적 요소를 모두 다루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해되었다(Frost et al., 1990; Hewitt & Flett, 1991a,

1991b). Frost 등(1990)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는 개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완벽주의를 설명하였고, Hewitt과 Flett(1991a, 1991b)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Hewit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MPS)는 완벽주의의 방향과 관계적인 측면에 따라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등 3가지 하위요인으로 설명하였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두고 스스로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개인 내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을 의미하고,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타인에게 높은 기준을 제시하여 그들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 비판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을 실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적 신념을 반영한 것으로, 타인이 자신에 대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엄격하게 평가하고 그것에 부응하지 못하면 거부당할 것이라는 부적응적인 심리 상태와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김윤희, 서수균, 2008). 그리고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lett & Hewitt, 2002). 심리치료의 경우 내담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전문가인 치료사에게 도움을 청해 치료 관계를 맺는 것이기에(권석만, 2012), 치료사는 중요한 타인인 내담자의 기대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미술 작업에 대한 전문성을 기대하는 부분까지 있기에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미술치료사의 치료장면에 좀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불안의 관계를 다룬 일반적인 연구들을 보면,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HMPS)의 하위요인인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 지향 완벽주의보다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불안과 가장 관련이 깊다(강리영, 2016; 성정혜, 김춘경, 2017). 그리고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수행불안(박연주, 2020), 사회불안(김지연, 강민철, 2022), 시험불안(정아영, 김은하, 신희천, 2017; 최서희, 2016), 발표불안(신정민, 박명숙, 함경애, 2014), 취업불안(김더미, 정주리, 2021) 등 다양한 불안과 정적 관련이 있다.

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사회부과 완벽주의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심리적 소진, 우울 등 부정적 정서와 정적 관련이 있고(김연주, 허난설, 2021; 이희경, 2016), 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부적 관계가 있다(지인구, 주영아, 2019). 또한, 상담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내담자들을 위해 완벽하게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더 크게 경험하는 전문 상담사들은 더 큰 수준의 부정적인 감정, 더 많은 초조함, 더 많은 대처의 어려움, 더 낮은 정서적 안정을 경험한다(John et al., 2008). 그리고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상담자는 외향성이 낮아서 내담자와 상담 관계를 맺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나누는 자질을 억제하게 되고, 이러한 성격적 특성으로 인해 상담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다(Holden, 2020). 그러나 완벽주의 성향은 성격적 요인이 강하여 쉽게 바뀌기가 어렵고, 완벽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보았다(Flett & Hewitt, 2002). 따라서 완벽주의 성향 자체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완벽주의가 수행불안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변인을 찾아 개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다.

Corey(2017)는 심리치료에서 치료사를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보았다. 그리고 치료사의 자질은 실제로 치료성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강석영, 2008; 박수영, 최한나, 2013). 따라서 미술치료사의 자질은 미술 매체나

환경보다 치료과정에서 내담자의 인격적 성장을 이끄는 데 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치료사의 완벽주의와 수행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할 요인을 치료사의 자질 중에서 찾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심리치료 중 상담 분야에서는 오랜 기간 자기효능감을 상담 과정이나 성과와 관련하여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주목해 왔다(홍윤선, 2017). '상담자 자기효능감'은 상담자로서 갖는 기술이나 전문성이 아닌, 상담상황에서 인지적 자원과 동기, 다양한 행동과정 등을 이용하여 문제 상황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관한 판단과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Eden & Aviram, 1993; Martocchio, 1994), 상담자로 활동하는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이 포함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상담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상담자는 배움에 대한 숙달 목표가 높아지고 높아진 숙달 목표는 상담자의 수행수준을 향상시킨다(박희현, 오숙경, 2013; 정지희, 2014).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상담자인 경우 상담 장면에서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더 적게 느끼고, 부정적인 정서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박정아, 2015; 윤선재, 이영애, 2012). 그리고 Larson과 Daniel(1998)은 심리치료에서 치료 경험이 많을수록 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치료사의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치료사의 높은 만족도는 불안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낮고(김채연, 최외선, 김갑숙, 2014), 치료장면에서 치료사와 내담자의 신뢰적인 치료 협력관계를 도우며, 치료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치료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석영, 2008; 양미라, 2019; 유미숙, 전정미, 백소윤, 2008). 반면에, 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 심리적 소진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 치료 수행에 대한 의욕이 낮아지고, 치

료사 자신과 내담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어 치료의 의미와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감지현, 2012; 고은하, 김광웅, 2001). 따라서 미술치료사의 높은 자기효능감은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의 영향을 덜 받게 하고, 내담자와의 치료 협력관계를 도와 치료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불안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을 다룬 여러 선행연구를 보면, 대학생의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사회불안(강리영, 2016; 이현진, 2016), 아동의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발표불안(신정민 등, 2014), 음대생의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연주불안(김자운, 2020), 간호대생의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시험불안(장인순, 박승미, 2021)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이 부적으로 매개하였다. 이는 사회부와 완벽주의가 자기효능감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불안을 낮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미술치료사의 사회부와 완벽주의가 수행불안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미술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술치료 장면에서 미술치료사의 전문적 지식, 기술,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미술치료사의 전문적인 역량으로 내담자들이 받는 치료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심리상담 관련 법안 발의 내용에서도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치료사의 자격 기준을 정하는데 임상 수련 기간과 감독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계속 논의되고 있고, 특히 수련과 관련하여 슈퍼비전은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슈퍼비전 과정에서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저의 지적이나 평가에 두려움을 받거나 자신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전문적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슈퍼비전에 대한 여러 부정적 상황도 초래할 수 있기에 슈퍼비전뿐만 아니라 슈퍼비전 관계까지 살

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슈퍼비전은 심리치료 현장에서 경험이 적은 치료자가 숙련된 치료자에게 이론부터 지식, 태도, 인간적인 자질과 정신적인 성숙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지도와 지지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이정민, 안지영, 금창민, 2021) 미술치료사의 전문적 역량을 향상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더욱이 미술치료 슈퍼비전은 숙련된 치료자인 슈퍼바이저로부터 도제식 훈련, 내담자 작품에 대한 이해, 경험이 적은 슈퍼바이저인 치료사의 자기감정에 대한 탐색이 함께 이루어지기에 다른 심리치료와의 차별성과 중요성이 있고(Malchiodi & Riley, 1996), 미술치료사의 질적 수준을 평가, 감독하는 기능을 지니기에 치료사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원희량, 2016). 또한, 미술을 다루며 받는 슈퍼비전을 통해서 미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고 미술 작업과정과 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황현주, 김선희, 2022)

이렇게 미술치료 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슈퍼비전에 대해 유미숙, 최명선, 정윤경(2009)은 슈퍼비전 관계란,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 간의 관계로 슈퍼비전이 진행되는 동안 슈퍼바이저가 상담자이자 교육자의 역할로 치료사인 슈퍼바이저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슈퍼비전 관계를 정서적인 유대감을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전문적 신장을 위한 교육적인 부분, 평가적인 측면과 구조화된 형식인 슈퍼비전 회기까지 아우르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해하였다(오형경, 진미경, 2018; Cliffe et al., 2016). 슈퍼비전 관계에 관한 연구들도 슈퍼비전 관계를 구조화, 성찰적 교육, 안전기반인 하위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구조적인 측면에서 슈퍼비전의 회기가 진행될수록 시간, 내용, 주제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슈퍼바이저는 긍정적인 슈퍼비전

관계를 통해 환경적인 안정감을 느낀다(권도연, 진미경, 2021; 이소연, 진미경, 2021). 성찰적 교육의 경우 슈퍼바이저의 평가와 적절한 피드백을 받으면, 슈퍼바이저는 자신을 지속적으로 돌아봄으로써 내담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적절한 치료개입과 상담 방향에 관해 도움을 받아 심리적 소진을 적게 느낀다(김길문, 정남운, 2004; 김단비, 진미경, 2019). 특히 안전기반 연구에서 슈퍼바이저의 지지를 받을수록 슈퍼바이저의 불안, 막연함, 혼란 등을 공감받으면서 상담자인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현민홍, 홍혜영, 2018). 또한,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 간에 상호신뢰와 존중의 관계, 작업동맹이 잘 이루어져 있을 때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저의 부정적인 평가의 영향을 덜 받고, 불안한 경험에도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며(Reifer, 2001), 슈퍼바이저가 경험하는 역할 갈등 및 역할 어려움을 감소시킨다(손은정, 유성경, 강지연, 임영선, 2006). 그리고 슈퍼비전 과정에서 슈퍼바이저는 자신의 상담방법이나 전문적인 능력,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 긍정적 평가인 인정을 받으면서 상담자는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홍영식, 한재희, 2012). 실제로 상담자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규칙적으로 받는 슈퍼비전의 유무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이승희, 김광웅, 2018; 천혜숙, 유미숙, 2010). 이 밖에도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슈퍼비전 관계는 상담자의 자기 성찰을 촉진하여 상담자의 전문성을 발달시킨다고 보았다(Sexton & Whiston, 1994).

완벽주의와 관련된 슈퍼비전 관계 선행연구에서는 슈퍼비전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상담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지인구, 주영아, 2019). 그리고 사회적 지지 역할을 하는 슈퍼바이저의 지지가 완벽주의를 완화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

는 것으로 밝혀졌다(Brand et al., 1995; Dunkley et al., 2000). 따라서 치료사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슈퍼비전의 관계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치료사의 불안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 치료장면에서 수행불안을 경험하는 치료사에게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슈퍼비전 관계가 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거나 유지하게 영향을 미쳐 불안을 낮출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술치료사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치료사의 자기효능감과 치료사의 전문적 역량을 다루는 슈퍼비전 관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미술치료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사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슈퍼비전 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미술치료사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행불안, 자기효능감, 슈퍼비전 관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미술치료사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미술치료사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슈퍼비전 관계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넷째, 미술치료사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슈퍼비전 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있는 사설 전문 상담 기관, 병원, 복지관, 대학 부설 상담 기관 등의

미술치료실에서 근무하는 미술치료사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단 회의 슈퍼비전을 받은 슈퍼바이저의 경우 슈퍼비전 관계를 충분히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선행 연구(오환희, 이영애, 2020)에 따라 슈퍼비전을 최소 3회 이상 받은 미술치료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지 않거나 중간에 답변을 누락한 경우, 연구 요건인 슈퍼비전 3회 이상 받지 못한 대상자들의 설문을 제외한 184부가 최종 연구에 반영되어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이 177명(96.2%)으로 연구대상자의 주를 이루었고, 남성은 7명(3.8%)이었다. 연령은 만 30~39세 이하 75명(40.8%), 만40~49세 이하가 59명(32.1%), 만50~59세 이하 29명(15.8%), 만20~29세 이하 16명(8.7%), 만 60세 이상이 5명(2.7%)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석사 졸업이 90명(48.9%)로 가장 많았으며, 학사졸업은 41명(22.3%), 석사과정 28명(15.2%), 박사과정 13명(7.1%), 박사수료 4명(2.2%), 박사졸업은 8명(4.3%)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주 근무처로는 일반 전문 상담기관인 상담센터가 97명(52.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복지관 35명(19%), 병원 미술치료실 23명(12.5%), 대학부설 미술치료실 18명(9.8%), 그밖에 Wee센터, 초등 Wee클래스, 프리랜서, 특수학교, 아동양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대상자가 11명(6.0%)이었다. 연구대상자의 경력은 1년 미만이 27명(14.7%), 1년 이상~3년 미만이 48명(26.1%), 3년 이상~5년 미만은 43명(23.4%), 5년 이상~10년 미만 44명(23.9%), 10년 이상의 경력은 22명(12.0%)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당 상담 사례 수는 1~5회가 63명(34.2%)으로 가장 많았고, 6~10회가 36명(19.6%), 11회~15회가 45명(24.5%), 16회~20회는 22명(12.0%), 21회 이상은 18명(9.8%)이었

다. 그동안 슈퍼비전 받은 횟수는 3회이상~5회 미만이 64명(34.8%), 5회 이상~10회 미만이 40명(21.7%), 10회 이상~15회 미만은 29명(15.8%), 15회 이상~20회 미만 10명(5.4%), 20회 이상은 41명(22.3%)이었다. 슈퍼비전 받은 빈도는 불규칙적으로 받은 사람이 75명(40.8%)으로 가장 많았고, 1달에 한 번 받는 대상자는 38명(20.7%), 2달에 한 번은 32명(17.4%), 1주일에 한 번 26명(14.2%), 2주일에 한 번 13명(7.1%) 순으로 나타났다. 미술치료사 관련 자격증 유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미술치료사 관련 자격증은 166명(90.2%)가 소지하고 있었고, 18명(9.8%)가 미소지로 근무하고 있었다. 자격증 발급처는 미술치료 관련 학회와 협회, 대학교, 교육개발원 등 총 28개로 다양하게 보고되었는데, 이는 미술치료사가 민간 자격이고 발급처가 등록제로 운영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미술치료학회 자격증 소지자가 17명(10.7%), 한국미술심리치료연구학회 자격증 소지자 17명(10.2%), 대구사이버대학교 자격증 소지자가 13명(7.8%), 한국직업능력진흥원 9명(5.4%) 순으로 많았고, 그 외 기관 발급처 대상자는 53명으로 자격 발급처를 보고한 연구대상자는 총 109명(65.7%)이고, 발급처를 기재하지 않은 연구대상자는 57명(34.3%)이었다.

측정도구

사회부와 완벽주의 척도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와 완벽주의 측정을 위해 Hewitt과 Flett(1991b)의 다차원 완벽주의 척도(HMPS)의 하위요인 중 '사회부와 완벽주의'를 측정할 목적으로 한기연(1993)이 번안한 것을 이소연과 진미경(2021)의 연구에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인이 자신에게 완벽함을 부담시킨다고 느끼는 특성을 평가한 내용(예, '나의 가족은

내가 완벽하기를 바란다.'')으로, 총 15문항이며,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게 측정될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이소연과 진미경(2021)의 연구에서 '사회부와 완벽주의' Cronbach's α 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사회부와 완벽주의' Cronbach's α 는 .84이다.

자기효능감 척도

미술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영신과 김동민(2019)이 개발 및 타당화한 예술치료사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예술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미술치료 전문가와 지도교수의 검토를 거쳐 '예술'을 '미술'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하위요인은 '치료 중재기술', '치료 관계', '난제 해결', '예술적 소양'으로 총 18문항이며, 6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게 측정될수록 미술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김영신과 김동민(2019)의 연구에서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4이다.

수행불안 척도

본 연구에서는 김은지와 박보람(2019) 연구에서 이지연(2011)의 임상 불안 척도를 미술치료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수행불안 척도'로 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체 30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불안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김은지와 박보람(2019)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는 .90이었고,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7이다.

슈퍼비전 관계 척도

미술치료사의 슈퍼비전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Cliffe 등(2016)이 단축형으로 재구성한 척도

를 오형경과 진미경(2018)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슈퍼비전 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총 17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슈퍼비전 관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오형경과 진미경(2018)의 연구에서 슈퍼비전 관계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6이며, 본 연구에서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4이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숙명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심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3월 14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기관의 협조로 사내 게시판에 공지글을 게시하거나 SNS를 통한 설문지 링크 전달, 미술치료사 관련 커뮤니티와 미술치료학과 대학원 커뮤니티, 미술치료 관련 학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설문링크를 게시하여 자발적 참여를 동의한 미술치료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기 전 연구대상자가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자를 위한 설명문을 게시하였고, 응답 시의 주의사항과 중도 포기한 답안 처리, 그리고 혹시라도 설문 참여시나 참여 후에 심리적인 불편감이 발생할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과 연구 종료 후 자료처리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설명문을 읽고 연구에 자발적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는 사회부와 완벽주의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 수행불안 척도, 슈퍼비전 관계 척도 순으로 구성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5.0 통계 프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 3.3.1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료처리 및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고, 연구에 사용된 각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미술치료사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슈퍼비전 관계, 자기효능감, 수행불안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미술치료사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수행불안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ayes(2018)의 SPSS PROCESS Macro 4번 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넷째, 미술치료사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슈퍼비전 관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Hayes(2018)의 SPSS PROCESS Macro 1번 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다섯째, 미술치료사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기효능감을 거쳐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슈퍼비전 관계가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Hayes(2018)의 SPSS PROCESS Macro 7번 모형을 이용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와 조

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파악하였다.

III. 결과

연구 변인 간의 상관관계

미술치료사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수행불안 및 슈퍼비전 관계가 서로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와 방향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미술치료사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수행불안, 슈퍼비전 관계의 상관 정도와 평균, 표준편차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r=-.376, p<.01$)간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수행불안($r=.455, p<.01$)간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슈퍼비전 관계 ($r=-.285, p<.01$)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효능감은 수행불안($r=-.657, p<.01$)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슈퍼비전 관계($r=.436, p<.01$)와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또한, 슈퍼비전 관계와 수행불안 ($r=-.379, p<.01$)간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

표 1.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수행불안, 슈퍼비전 관계의 상관관계 (N=184)

변수	1	2	3	4
1. 사회부과 완벽주의	1			
2. 자기효능감	-.376**	1		
3. 수행불안	.455**	-.657**	1	
4. 슈퍼비전 관계	-.285**	.436**	-.379**	1
평균	2.56	4.39	1.63	5.18
표준편차	.528	.633	.512	.833

** $p<.01$

였다.

연구대상자들인 미술치료사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전체 점수는 5점 척도에서 평균 2.56이었고, 자기효능감은 전체 6점 척도에서 평균 4.39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상 장면에서 미술치료사들이 느끼는 수행불안은 4점 척도에서 평균 1.63으로 나타났고, 슈퍼비전 관계는 7점 척도에서 평균 5.18이었다.

미술치료사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수행불안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조절된 매개효과는 모형을 이루는 매개 및 조절효과가 각각 독립적으로 유의미해야 한다 (Preacher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조절된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Preacher와 Hayes (2004)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 순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미술치료사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수

행불안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8)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4번 model을 활용하였고,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1단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수행불안에 유의미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55, p<.001$). 2단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76, p<.001$). 다음으로 3단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수행불안에는 정적 영향($\beta=.242, p<.001$)을, 자기효능감이 수행불안에는 부적 영향($\beta=-.566,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모두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β 의 절대값)이 .455에서 .242로 감소하였으므로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PROCESS Macro Model 4를 통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확인을 위해 표본 수 5000개를 설정하였고, 그 결

표 2.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N=184)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β	t
1	사회부과완벽주의	수행불안	-.441	.064	.455	6.888***
2	사회부과완벽주의	자기효능감	-.451	.082	-.376	-5.474***
3	사회부과완벽주의	수행불안	.235	.056	.242	4.190***
	자기효능감		-.458	.047	-.566	-9.805***

*** $p<.001$

표 3.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184)

경로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사회부과완벽주의→자기효능감→수행불안	.235	.056	.124	.345

*L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U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간접효과 계수는 .235이었으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124, 상한값 .345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슈퍼비전 관계의 조절효과 분석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1을 사용하였고, 다중공선성 문제의 감소를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독립변인인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종속변인인 자기효능감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고($\beta = -.373, p < .001$), 조절변인인 슈퍼비전 관계는 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85, p < .001$).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슈퍼비전 관계 상호작용항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사회부과 완

벽주의와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슈퍼비전 관계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12, p < .05$). 즉, 미술치료사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슈퍼비전 관계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또한,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슈퍼비전 관계의 설명량은 27.9%로 유의하게 나타나($F = 23.217, p < .001$) 슈퍼비전 관계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슈퍼비전 관계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조절 변인인 슈퍼비전 관계의 특정 값을 -1SD, Mean, +1SD로 설정하였고(Aiken & West, 1991), PROCESS Macro Model 1로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슈퍼비전 관계가 낮은 집단(-1SD)과 중간 집단에서 간접효과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높은 집단(+1SD)에서의 간접효과는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리고 슈퍼비전 관계가 낮은 집단일수록 높은 집단에 비해 사회

표 4.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관계에서 슈퍼비전 관계의 조절효과 검증 (N=184)

독립변수	종속변수: 자기효능감				
	β	SE	t	F	R ²
사회부과 완벽주의	-.373	.082	-4.565 ^{***}		
슈퍼비전관계	.285	.051	5.642 ^{***}	23.217 ^{***}	.279
사회부과×슈퍼비전관계	.212	.096	2.219 [*]		

^{*} p<.05, ^{***} p<.001

표 5. 슈퍼비전 관계의 조건 값에 따른 상호작용의 유의성 검증 (N=184)

슈퍼비전 관계	B	SE	t	LLCI	ULCI
Mean-1SD(-.833)	-.550	.127	-4.320 ^{***}	-.800	-.299
Mean	-.373	.082	-4.565 ^{***}	-.534	-.211
Mean+1SD(.8333)	-.196	.099	-1.968	-.392	.000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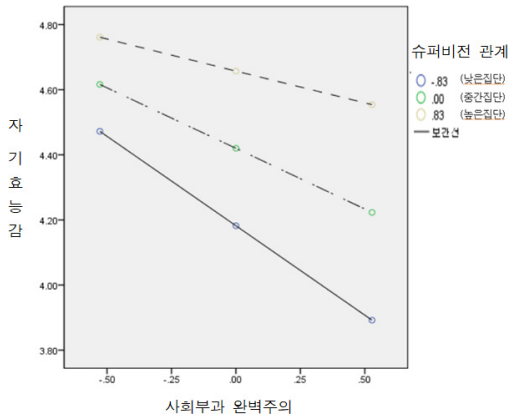


그림 1.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관계에서 슈퍼비전 관계의 조절효과 그래프

부과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의 부적인 관계가 더 확실하게 나타났다. 즉, 미술치료가 슈퍼비전 관계를 높게 지각하는 경우,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증가하여도 자기효능감을 높게 유지하였지만, 슈퍼비전 관계를 낮게 지각하는 경우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증가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매우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슈퍼비전 관계가 낮은 미술치료가 높은 미술치료사에 비해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인한 자기효능감이 감소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상호작용항이 유의함에 따라 슈퍼비전 관계의 조건부 효과 탐색을 위해(Spiller et al., 2013) Johnson-Neyman의 기법을 활용하였다. 이는 조명등 분석법으로 조절변수 값에 따라서 조절효과가 어느 영역에서 유의한지 알 수 있다. 이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슈퍼비전 관계 값이 .832보다 낮은 영역에서 유의하였고, .832보다 높은 영역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슈퍼비전 관계는 .832보다 낮은 영역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조절 효과를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슈퍼비전 관계가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개별 회귀선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슈퍼비전 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지금까지 Preacher와 Hayes(2004)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수행불안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관계에서 슈퍼비전 관계의 조절효과를 순차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통합모형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슈퍼비전 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7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먼저, 독립변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조절변인 슈퍼비전 관계의 상호작용항이 매개변인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219, p<.05$). 다음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t=-4.565, p<.001$), 자기효능감이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9.805, p<.001$). 이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기효능감을 통해 수행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슈퍼비전 관계는 자기효능감이 수행불안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술치료사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기효능감을 거쳐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슈퍼비전 관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덜 감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슈퍼비전 관계가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표본 수 5000개를 추출하여 부트스트랩 방식으로 간접효과 계수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뒤, 간접효과 크기와 신뢰구간을 확인하였고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슈퍼비전 관계 수준이 높아질수

표 6. 슈퍼비전 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N=184)

	종속변수: 자기효능감				
	비표준화계수		t	LLCI	ULCI
	B	SE			
사회부과 완벽주의	-.373	.082	-4.565***	-.534	-.211
슈퍼비전관계	.285	.051	5.642***	.185	.385
사회부과×슈퍼비전관계	.212	.096	2.219*	.023	.401

	종속변수: 수행불안				
	비표준화계수		t	LLCI	ULCI
	B	SE			
사회부과 완벽주의	.235	.056	4.190***	.124	.345
자기효능감	-.458	.047	-9.805***	-.550	-.366

*p<.05, ***p<.001

표 7. 슈퍼비전 관계 수준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184)

슈퍼비전 관계	슈퍼비전 관계의 조건부 값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			
	Effect	Boot SE	LLCI*	ULCI**
Mean-1SD(-.833)	-.550	.127	-.800	-.299
Mean	-.373	.082	-.534	-.211
Mean+1SD(.833)	-.196	.099	-.392	.000

*LLCI=boot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ULCI=boot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록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1SD=-.550, Mean=-.373, +1SD=-.196). 또한, 슈퍼비전 관계의 -1SD과 평균값에서 간접효과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1SD에서의 간접효과는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슈퍼비전 관계 수준이 낮은 미술치료사 집단이 평균인 집단보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수행불안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부적 간접효과를 더욱 크게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슈퍼비전 관계가 높은 집단에 그 영향이 덜함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슈퍼비전 관계가 긍정적으로 유지될수록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조절 즉,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기관이나 학교, 상담센터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술치료사 184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행불안, 자기효

능감과 슈퍼비전 관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수행불안과의 관계에서 미술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슈퍼비전 관계의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및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변인인 미술치료사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행불안, 자기효능감, 슈퍼비전 관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수행불안과 정적 관련이 나타났고,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슈퍼비전 관계와는 부적 관련을 보였다. 이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더 높은 불안, 더 낮은 자기효능감, 더 낮은 슈퍼비전 관계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술치료사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수행불안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일수록 불안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들과(김더미, 정주리, 2021; 김지연, 강민철, 2022; 박연주, 2020; 정아영 등, 2017)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상담사의 심리적 소진,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정적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김연주, 허난설, 2021; 이희경, 2016)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미술치료사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미술치료사의 자기효능감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아진다는 연구(강리영, 2016; 이정아, 2020)와 같은 결과이다. 그리고 미술치료사의 수행불안과 자기효능감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치료장면에서 불안을 낮게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치료사가 치료장면에서 불안을 경험하더라도 자기효능감을 유지한다면 불안을 덜 느끼게 된다는 선행연구(김은지, 박보람, 2019; 김채연 등, 2014; 이소라, 2014; 정푸른,

2016; 홍수현, 최해림, 2001)와 그 결과를 같이 한다. 다음으로 미술치료사의 슈퍼비전 관계는 자기효능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수행불안, 사회부과 완벽주의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슈퍼비전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을 높인다는 선행연구 결과(권도연, 진미경, 2021; 이승희, 김광웅, 2018; 지인구, 주영아, 2019)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슈퍼바이저의 지지적 관계가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최지영, 이영애, 2009)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그리고 슈퍼비전을 통해 치료과정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연구(윤선재, 이영애, 2012; 이다슬, 2016)와 슈퍼비전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지인구, 주영아, 2019)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미술치료사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수행불안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적으로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술치료사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수행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미술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불안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한다는 결과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강리영(2016)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불안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하여 불안을 낮춘다고 하였고, 신정민 등(2014)의 연구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의한 아동의 발표불안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간호대학생, 음대생,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를 보고하였다(김자윤, 2020; 이현진, 2016; 장인순, 박승미, 2021).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

연구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심리치료사와 관련하여 미술치료사의 경우에서도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인해 치료사가 수행불안을 경험할 때 자기효능감이 불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미술치료사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관계에서 슈퍼비전 관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것은 미술치료사의 슈퍼비전 관계 수준에 따라 미술치료사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 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슈퍼비전 관계 수준을 낮은 집단, 중간 집단, 높은 집단으로 나누어서 비교해 봤을 때 슈퍼비전 관계가 낮은 집단일수록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증가함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슈퍼비전 관계가 높은 집단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아져도 자기효능감을 높게 유지하였다. 이것은 미술치료사가 슈퍼비전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기효능감을 높게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사회부과 완벽주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초심상담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지인구와 주영아(2019)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초심상담자가 슈퍼비전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증가하여도 상담자의 자기효능감이 높게 유지되지만, 슈퍼비전 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매우 낮아짐을 보고하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넷째, 미술치료사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이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슈퍼비전 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술치료사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슈퍼비전 관계와 상호작용을 이루어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결국 미술치료사가 치료장면에서 경험하는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슈퍼비전 관계를 낮은 집단, 중간 집단, 높은 집단으로 나누어 평균 변화량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슈퍼비전 관계가 낮은 집단은 자기효능감이 급격하게 낮아져서 수행불안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슈퍼비전 관계가 높은 집단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아져도 자기효능감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수행불안을 낮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놀이치료자의 완벽주의 성향이 높아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고, 높은 기대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긍정적인 슈퍼비전 관계가 완벽주의를 완화함으로써 심리적 소진을 낮추는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이소연, 진미경, 2021; 이승미 등, 2019)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그리고 상담자가 슈퍼비전에서 비판적이고 평가적인 관계가 아닌 공감과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불안을 덜 경험하게 되고 상담 과정에서 거시적 시선으로 전문가의 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는 Worthen과 McNeill(1996)의 연구와도 그 흐름을 같이한다. 즉, 긍정적인 슈퍼비전 관계가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완화요인으로 작용하여 미술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을 유지하게 도와주고, 치료사가 경험하는 불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사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슈퍼비전 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미술치료사의 수행불안을 낮출 수 있는 심리적 보호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내담자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부분을 채워주고 그들을 실망시켜선 안된다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미술치료사가 수행불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미술치료사의 내적 요인인 자기효능감이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인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치료사의 자기효능감

을 유지하는 기능으로 슈퍼비전 관계가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고, 치료사를 부정적 정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미술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슈퍼비전 관계의 조절 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를 규명하여 미술치료사의 불안 등의 부정적 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 요인에 관한 연구를 넓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의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슈퍼비전 관계가 슈퍼비전 과정과 성과에서 중요한 요인이며(Bernard et al., 2009; Ladany et al., 2005), 치료장면과 치료사에게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미술치료사가 치료장면에서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탐색하고 다룰 수 있도록 긍정적인 슈퍼비전 관계를 위해 슈퍼비전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슈퍼바이지의 자질이나 슈퍼바이지의 태도, 구조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본 연구가 기초자료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그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현재 미술치료사로 근무하며 슈퍼비전 경험이 3회 이상 있는 미술치료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미술치료사로 일반화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사의 특성을 인구통계학적 자료로 보고형식으로만 다루어서, 연구주제와 연결하여 미술치료사의 경력에 따른 차이나 성별이 가져오는 차이 등 세심하게 연구에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

는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대상자의 자기 보고식 설문지의 정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연구대상자가 설문에 방어적이거나, 실제의 모습보다 축소, 과장하여 대답했을 가능성이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관찰과 면접 등의 연구 방법을 통해 좀 더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연구자료를 수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사가 치료장면에서 경험하는 수행불안과 관련하여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슈퍼비전 관계의 변인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밖에도 미술치료사의 수행불안과 관련하여 미술치료사의 치료적 자질이나 능력, 슈퍼바이저의 자질, 슈퍼바이지의 성격적 특성 등 다양한 변인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치료사의 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낮출 수 있는 여러 변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지현(2012). 미술치료자의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리영(2016).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불안의 관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자기효능감의 이중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석영(2008). 상담자 자기효능감과 상담성과의 관계에서 상담자 역전이 행동 및 내담자 협력 관계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고은하, 김광웅(2001).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 경험과 대처유형에 관한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4(1), 3-14.

국민참여 입법센터(2022). 입법진행현황의 국회입법 현황부분에서 참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

mMain

- 권도연, 진미경(2021).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슈퍼비전 관계의 조절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24(1), 1-18.
- 권석만(2012). **현대심리치료와 상담이론: 마음의 치유와 성장으로 가는 길**. 서울: 학지사
- 기정훈(2022. 08. 10). 코로나 이후 우울위험 5배 · 자살생각 3배 늘어...심리상담지원 강화.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2208101009256530
- 김길문, 정남운(2004). 초보 상담자가 상담 회기내에 경험한 어려움과 대처과정: 질적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20.
- 김단비, 진미경(2019). 놀이치료자의 역전이 관리능력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슈퍼비전 관계의 조절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22(1), 35-53.
- 김더미, 정주리(2021).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취업불안의 관계: 자기개념 명확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 **미래교육학연구**, 34(2), 133-154.
- 김연주, 허난설(2021). 상담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소진의 관계에서 자기불일치의 매개효과. **열린교육연구**, 29(5), 147-167.
- 김영신, 김동민(2019). 예술치료사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1(2), 1-22.
- 김예은, 김갑숙(2020). 미술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 자기돌봄의 매개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16(2), 29-54.
- 김윤희, 서수균(2008). 완벽주의에 대한 고찰: 평가와 치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581-613.
- 김은지, 박보람(2019). 미술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수행불안의 매개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15(3), 31-51.
- 김자윤(2020). **음대생의 완벽주의와 연주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 강민철(2022).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초점적 주의와 반복적 부정적 사고의 순차적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3(6), 3901-3916.
- 김지은, 광민정(2021). 코로나19(COVID-19)시대 미술치료사의 인식현황, 대처역량 및 윤리의식 연구. **미술치료연구**, 28(3), 635-658.
- 김채연, 최외선, 김갑숙(2014). 미술치료사의 자의식과 발달수준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연구**, 21(1), 69-88.
- 박수영, 최한나(2013). 상담자가 지각한 상담성고를 가져오는 상담자 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14(5), 2969-2986.
- 박연주(2020).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학업지연행동간의 관계: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자기자비, 수행불안의 순차적 매개효과**.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아(2015). **초심상담자의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의 조절효과**.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영, 홍혜영(2019).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수행불안의 관계: 인지적 유연성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0(5), 23-40.
- 박희현, 오숙경(2013). 청소년상담자의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16(2), 153-169.
- 성정혜, 김춘경(2017). 대학생의 성인애착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정서조절양식을 매개로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14(3), 91-109.
- 손은정, 유성경, 강지연, 임영선(2006). 슈퍼비전 작업 동맹과 상담자 경력 수준이 역할 어려움과 슈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695-711.
- 신정민, 박명숙, 함경애(2014).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 아동의 발표불안과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0(4), 23-43.
- 양미라(2019). **상담자 자기효능감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심리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형경, 진미경(2018). 한국판 수퍼비전 관계 척도(K-S-SRQ)의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9(2), 25-41.
- 오환희, 이영애(2020). 수퍼바이저의 애착 전략과 수퍼비전 만족도 관계에서 자기개방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23(1), 53-70.
- 원희량(2016). 미술치료에서 미술을 기반으로 한 수퍼비전의 중요성과 실제 적용에 대한 고찰. **미술치료연구**, 23(6), 1625-1642.
- 유미숙, 전정미, 백소운(2008). 놀이치료사가 지각한 자기효능감이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대인관계성향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615-634.
- 유미숙, 최명선, 정윤경(2009). 숙련 놀이치료자의 수퍼비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12(4), 19-42
- 윤선재, 이영애(2012).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관리능력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15(4), 549-566.
- 이다슬(2016). **초심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공감피로의 관계에서 수퍼비전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훈, 김예진, 이덕희, 황희훈, 남슬기, 김지윤(2020).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에 대한 일반대중의 두려움과 심리, 사회적 경험이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4), 2119-2156.
- 이성령, 홍혜영(2016). 직장인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위로 능력의 조절효과. **통합치료연구**, 7(2), 35-57.
- 이성원, 양난미(2015).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4), 225-244.
- 이소라(2014). **음악치료 전공생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및 임상불안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연, 진미경(2021). 놀이치료자의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퍼비전 관계의 조절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6(2), 25-40.
- 이승미, 강윤심, 최보영(2019). 수퍼바이저의 지지와 상담자 소진의 관계에서 수퍼비전 만족도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6(8), 31-51.
- 이승희, 김광웅(2018). 놀이치료자의 경력과 훈련 경험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소진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 21, 9(1), 555-568.
- 이정민, 안지영, 금창민(2021). 수퍼비전 작업동맹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 1983년~2019년까지. **교육치료연구**, 13(1), 185-211.
- 이정아(2020).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특성불안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2011). 음악치료사의 임상불안과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8(2), 1-20.
- 이현진(2016).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형주, 최해림(2010). 상담자의 공감, 상태-특성 불안, 완벽주의 부정적 결과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해**, 31(1), 29-45.
- 이혜선, 최선남(2010). 미술치료사의 치료경험과 역전이 관리 능력이 치료성과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연구**, 17(1), 149-155.
- 이희경(2016). 상담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정신건강의 관계: 진정성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7(1), 89-106.
- 장인순, 박승미(2021). 자기효능감, 사회부과 완벽주

- 의가 간호대학생의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근관절건강학회지**, 28(2), 121-129.
- 전진아, 이지혜(2020).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마음건강 돌봄 현황 및 과제. **보건·복지 Issue&Focus**, 375, 1-8.
- 정아영, 김은하, 신희천(2017).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학업스트레스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4(3), 281-304
- 정지희(2014). **상담자의 자기효능감, 전문직 정체성, 성취목표, 수행수준의 관계**.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푸른(2016). **음악치료사의 심리적 소진과 임상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검증**.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소영(2020).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미술치료사의 역전이 체험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인구, 주영아(2019). 초심상담자의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 슈퍼비전 관계의 조절효과 검증. **교육치료연구**, 11(1), 93-113.
- 채양희(2020). **미술치료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요인과 자기위로능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혜숙, 유미숙(2010). 놀이치료 슈퍼비전에서의 작업동맹, 치료자의 자기개방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상담학연구**, 11(3), 1175-1189.
- 최명선, 김봉환(2014). 미술치료사의 전문가 되기 여정에 관한 존재론적 탐구. **미술치료연구**, 21(3), 431-456.
- 최서희(2016).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여고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및 수행목표지향성이 시불안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윤미, 양난미(2002). 상담자 소진 내용의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581-598.
- 최지영, 이영애(2009).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와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관계.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12(3), 31-45.
- 최지욱(2021). 코로나19가 성인 및 소아청소년에 미치는 영향과 지원 방안. **신경정신의학**, 60(1), 2-10.
- 최혜윤, 정남운(2003). 상담자의 완벽주의 성향,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279-300.
- 한기연(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정적 관련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현민홍, 홍혜영(2018). 슈퍼바이저의 지지가 초심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2), 301-319.
- 홍수현, 최해림(2001). 상담초기단계에서 상담자의 자기효능감 및 상태불안이 상담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31-49.
- 홍영식, 한재희(2012). 상담수퍼비전에서 상담자의 자각이 상담과정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3), 1387-1406.
- 홍윤선(2017). 미술치료사 자기효능감에 대한 개념도 연구. **미술치료연구**, 24(1), 1-23.
- 황현주, 김선희(2022). 미술치료사의 미술치료 슈퍼비전 체험에 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미술치료연구**, 29(3), 737-764.
- Aiken, L. S., & West, S. G.(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Bandura, A.(1956). Psychotherapist's anxiety level, self-insight, and psychotherapeutic competence. *The Journal of a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2(3), 333-337.
- Bernard, J. M., & Goodyear, R. K.(2009). *Fundamental of clinical supervision (4th ed)*.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Brand, E. F., Lakey, B., & Berman, S.(1995). A preventive, psychoeducational approach to increase perceived social suppor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3*, 117-135.
- Cliffe, T., Beinart, H., & Cooper, M.(201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hort version of the supervisory relationship questionnaire.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23*(1), 77-86.
- Corey, G.(2017).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0판). (천성문, 권선중, 김인규, 김장희, 김창대, 신성만, 이동훈, 허재홍 공역). 서울: 세계이저러닝코리아(원전은 1976년 출판).
- Dunkley, D. M., & Blankstein, K. R.(2000). Self-critical perfectionism, coping, hassles, and current distres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4*(6), 713-730.
- Dunkley, D. M., Blankstein, K. R., Halsall, J., Williams, M., & Winkworth, G.(2000).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distress: Hassles, coping,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4), 437-453.
- Eden, D., & Aviram, A.(1993). Self-efficacy training to speed reemployment: Helping people to help themselv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3), 352 - 360.
- Flett, G. L., & Hewitt, P. L.(2002). Perfectionism and maladjustment: An overview of theoretical, definitional, and treatment issues.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5-31).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 Research, 14*(5), 449-468.
- Hayes, A. F.(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2ed)*.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Hewitt, P. L., & Flett, G. L.(1991a). Dimension of perfectionism in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1), 98-101.
- Hewitt, P. L., & Flett, G. L.(1991b).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 Holden, C. L.(2020). The 'perfect' counsellor: Personality factors and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48*(2), 183-194
- John, O. P., Naumann, L. P., & Soto, C. J.(2008). Paradigm shift to the integrative Big 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conceptual issues. In O. P. John, R. W. Robins, & L. A. Pervin(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pp.114-158). New York, NY: Guilford Press.
- Ladany, N., Friedlander, M. L., & Nelson, M. L. (2005). *Critical events in psychotherapy supervision: An interpersonal approach*.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arson, L. M., & Daniel, J. A.(1998). Reviw of the counseling self-efficacy literature. *The Counseling Psychology, 26*(2), 179-218.
- MacMullin, K., Jerry, P., & Cook, K.(2020). Psychotherapist experiences with

- telepsychotherapy: Pre COVID-19 lessons for a post COVID-19 world. *Journal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30(2), 248-264.
- Malchiodi, C. A., & Riley, S.(1996). *Supervision and related issues: A handbook for professionals*. Chicago, IL: Magnolia Street Publishers.
- Martocchio, J. J.(1994). Effects of conceptions of ability on anxiety, self-efficacy, and learning in train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9(6), 819-825.
- Preacher, K. J., & Hayes, A. F.(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Reifer, S.(2001). Dealing with the anxiety of beginning therapists in supervision. In S. Gill (Ed.), *The supervisory alliance: Facilitating the psychotherapist's learning experience*, (pp.67-74). NJ: Jason Aronson, Inc.
- Schaverien, J.(2000). The triangular relationship and the aesthetic countertransference in analytical art psychotherapy. In A. Gilroy, & G. McNeilly(Eds.), *The changing shape of art therapy: New developments in theory and practice* (pp.55-83). LD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Sexton, T. L., & Whiston, S. C.(1994). The status of the counseling relationship: An empirical review,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research direc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2(1), 6-78.
- Skovholt, T. M., & Rønnestad, M. H.(2003). Struggles of the novice counselor and therapis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0(1), 45-58.
- Spiller, S. A., Fitzsimons, G. J., Lynch Jr, J. G., & McClelland, G. H.(2013). Spotlights, floodlights, and the magic number zero: Simple effects tests in moderated regress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50(2), 277-288.
- Worthen, V., & McNeill, B. W.(1996). A phenomenological investigation of "good" supervision event 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1), 25-34.
-
- 투 고 일: 2024년 01월 19일
수 정 일: 2024년 02월 19일
게재확정일: 2024년 03월 26일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the Supervisory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the Performance Anxiety of Art Therapists

Kang, Ji Sun Park, Sung Ha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therapist's self-efficacy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the supervisory relationship between art therapist'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performance anxiety. For this purpose, the study surveyed targeting 184 art therapists working at counseling organizations across the country using the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Scale, Self-Efficacy Scale, Performance Anxiety Scale, and Supervisory Relationship Scal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and PROCESS Macro 3.3.1 program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rt therapist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performance anxiety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efficacy and supervisory relationship.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confirmed its meaningful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performance anxiety. Thir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supervisory relation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elf-efficacy revealed its significance. Fourth,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the supervisory relationship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performance anxiety.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Art therapist,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Self-efficacy, Performance anxiety, Supervisory relationship